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주일에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2시
금요일회 (밤) 8시30분
서울 교회 1600-0688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Jesus Centered News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주일에배 오후(3부) 2시
저녁예배 7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5년 6월 28일 (제800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1600-0688. 02)533-9191 Fax. 02) 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 575-5730 http://www.jcc.tv/칠아주일에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 컬럼

지령(紙齡) 800호에 부쳐

오래 전의 일이다. 해외집회를 다녀오니 내 책상에 아주 작은 선인장이 하나 놓여 있었다. 손녀가 사다놓은 모양이다. 참 앙증맞게도 생겼다 하며 지내는데 이게 몇 달이 지나도 자라지를 않는 것이다. 이상해서 만져보니 이게 플라스틱으로 만든 조화가 아닌가.

그렇다. 성장과 변화가 없는 것은 죽은 것이다.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변화하고 성장한다. 아이도 자라 어른이 되고, 굴뚝이도 나비가 된다. 그런데 변화도 없고 성장하지 못한다면 죽은 것이 아니겠는가. 문서선교는 하나님이 선택한 선교전략이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의 성경은 약 1,500년 간 40여 명의 선지자와 제자들에 의해 쓰여 졌다. 그들은 문서선교의 선봉장들이다. 내가 그 후예인 우리 문서선교팀에게 바라는 바는 성장 발전하여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다. 지금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원대한 뜻과 포부를 가지고 진군하기를 원한다.

누군가 우리 교회신문을 보고 가보(家寶)로 남기고 싶다고 했다. 가보 정도 되려면 명작이요 명품이어야 하는데, 명품은 거저 얻어지지 않는다. 심한 진통 끝에야 명작과 명품이 나온다. 꾸준한 노력과 인내, 끊임없는 연구가 진통이며, 이것이 바로 성장 발전의 초석이다. 부디 문서선교팀원 모두가 명작을 만드는 명인이 되기를 바란다.

800호가 된 우리 교회신문! 감개무량하다.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문서선교팀을 이끈 장로와 팀원들에게도 격려와 사랑을 아낌없이 보내는 바이다. 지금까지 잘 해왔지만, 더욱 열심을 내어 우리 교회신문을 통해 많은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길 기도한다.

모르는 것은 물어보는 게 지혜다

우리는 몽골 울란바토르(Ulanbator)에 세워진 몽골예수중심교회 입당예배를 위해 서울 및 인천교회 다섯 분의 시무장로님들과 몽골예수중심교회 건축의 시발점 역할을 하신 이권민 장로님과 함께 몽골 땅을 밟았다. 2004년 1, 2차 집회와 2006년 3차 집회 이후 9년 만의 방문인데,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옛말 그대로 수도 울란바토르는 뽕나무 밭이 푸른 바다로 변했다(桑田碧海)는 옛말처럼 놀랍게 변하고 있었다. 외길이던 공항도로는 편도 4차선의 넓은 도로로 확장되어 있었고, 낡은 건물과 벌판에 불과하던 도심은 빌딩 숲으로 변모해있었다. 한국에서 수입된 낡은 중고차들만 다니던 도로는 외제 자동차들로 가득했다.

기도와 헌물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몽골예수중심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할 이유다.

동행한 장로님들은 이구동성으로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해주었다. 어둡고 좁은 재래식 화장실이 첫 이미지를 훼손시킨다는 지적이었다. 목사님은 입당예배 설교를 통해 모르는 것은 아는 자에게 물어보는 것이 지혜라고 강조하셨다. 건축의 전문가에게 물어보면, 공사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뿐더러 더 효율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었다. 또한 입당예배면 교회의 잔치인데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았음을 지적하시며,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답답한 담장을 허물고, 양을 잡아 성도들에게 제공할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목사님의 지론이다. 도둑이 든다는 생각을 바꿔 '기도했으니 도둑이 들지 않는다, 왔다가도 은혜 받고 교회로 들어오는 역사가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라는 것이다.

담장을 제거하고 나니 앞면 이가 빠진 것 같으며 목사님은 매우 기뻐하셨다. 도로 건너편에 가서 봐도 교회 건물이 확 사는 느낌이었다. 교회 마당은 동네 사람들의 휴식처로 꾸며도 좋을 것 같았다.

저녁에는 성전을 가득 메운 성도들로 기쁨에 넘쳤고, 양 20마리를 잡아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제공해주었다. 교회 마당에 웅기종기 앉아 음식을 먹는 풍경이 그야말로 흥겨운 잔치마당이었다.

지난 2004년의 1, 2차 집회, 그리고



몽골예수중심교회 건축의 주역들과 함께(몽골예수중심교회)

그러나 도심만 벗어나면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보였다. 빈부격차만 커진 느낌이랄까? 그들이 칭기즈칸의 영광만 곱씹고 있어선 어떤 변화도 이끌어낼 수 없을 것이다. 목사님 말씀처럼, 칭기즈칸이 대제국을 건설했던 비결을 연구하여 그들의 발전전략으로 적용하고 실천해나갈 때에야 비로소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다. 몽골예수중심교회의 건축은 이권민 장로님의 헌물로 시작되었다. 공사가 진행되며 완공에 이르기까지 부족한 재원은 지속적으로 본부 교회가 지원했다. 몽골예수중심교회는 따라서 우리 성도들의

수 있도록 비행스케줄을 연기해서라도 하루 더 집회를 갖겠다고 선포하셨다. 그리고 장로님들에게 초코파이와 음료수를 사서 성도들에게 제공해줄 것을 지시하셨는데, 장로님들은 거기에 사과까지 곁들여 제공해주었다. 목사님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배려한 장로님들의 발상에 눈물이 찡했다고 몇 번이고 말씀하셨다. 이튿날 아침, 70, 80이 넘으신 장로님들까지 장갑을 끼고 담장철거에 앞장서자 교회 성도들도 힘을 합쳐 교회를 둘러싸고 있던 담장을 깨끗이 철거했다. 교회가 문을 닫아걸고, 담장을 세우는 것은 절대

2006년의 3차 집회 등 세 차례의 대형 집회를 통해 우리는 몽골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 메인스타디움에 모여 하나님의 기적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헌신과 희생으로 이루어진 집회였다. 몽골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히 숨 쉬고 있다고 믿는다. 언젠가 그 뿌리에서 싹이 트고 잎이 나고 꽃이 피며 열매를 맺는 무성한 결실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 확신한다.

한은택 전도사

henry8829@naver.com



담장철거에 장로님들이 앞장섰다.



몽골예수중심교회 입당예배



양을 잡아 성도들을 대접했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겔33:1~20)

파수꾼의 직무를 다하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찌어다”(겔33:7).

이 말씀은 30년 전 목회를 막 시작했을 때 성령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미물만도 못한 저를 이 나라와 세계의 영적 파수꾼으로 세우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말씀을 받았더니 30년이 지난 지금, 저는 우리나라 팔도강산을 다 다니고 세계 70여 개국에 주님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파수꾼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군 현역시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조금 수치스러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저는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백아대 장군은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없다’ 고 했는데요. 어느 날 제가 보초를 서다가 그만 잠이 들었지 뭐니까? 그런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날따라 상관이 조용히 시찰을 나온 겁니다. 딱 걸렸지요. 그 때 상관이 “너 때문에 우리는 다 죽은 거다.” 그러면서 때리는데 정말이지 안 죽을 만큼 맞았습니다. 얼마나 맞았는지 날이 흐리면 요즘도 다리가 저릴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못하면 다 적에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북한 군인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일명 ‘노크 귀순’을 했습니다. 북한 군인이 우리 군 최전방 경계선을 뚫고 들어온

특히 우리 예수중심교단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각별합니다. 하나님은 많고 많은 교회 중에서 지극히 작은 우리 교단을 택하셔서 국가와 민족을 위한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와 민족의 안녕을 위한 기도성회와 평화통일을 위한 기도성회를 지속적으로 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번쩍스럽게 우리 교회는 매번 평화통일을 위한 기도성회를 하느냐고 하는데, 왜 계속 하나면 한 마디로 말해서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통일이 되는 날까지 이 성회를 계속할 것입니다.

우리 교단이 국가와 민족의 파수꾼이요, 시대



총회장 이초석 목사

이 시기 때 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감당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제한바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겔33:6).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아 백성이 죽임을 당하게 되면, 그 책임이 파수꾼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고로 사명(使命)이란 목숨 내놓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더욱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최악이 성행하는 이 시대의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것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겔3:17). 하나님을 대신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이 시대를, 악으로 달리고 있는 이 시대를 깨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입을 다물고 있습

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시대를 방관하고 있습니다. 왜요? 굳이 손해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굳이 힘들게 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적당히 타협하면 편한데 굳이 일을 만들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질타는 이렇습니다.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병어리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 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사 56:10~12).

파수꾼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잠이 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하신 것입니다(막13:33). 주의 종들 뿐 아니라 모든 자들이 파수꾼이니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막13:37).

여러분, 가정에서의 파수꾼도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파수꾼인 셈입니다.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적이 침투하지 못하게 늘 기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적이 누구니까? 밤에 남의 담을 넘는 도둑도 지켜야 하지만,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곧 마귀와 그의 종재인 귀신들입니다. 그것들이 침투하지 못하게 늘 기도하는 자가 가정의 파수꾼입니다. 총 대신 예수 이름으로 싸우는 겁니다.

직장에서의 파수꾼도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겔33:2). 이 말씀은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기업 간의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이기려고 인재들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인재는 파수꾼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 입사했는데 그가 들어온 이후로 사고도 줄고 실적은 향상되고 사내 분위기가 좋아졌다면 그는 파수꾼이 맞습니다. 요셉이 생각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는 곳마다 형통했다고 했습니다. 파수꾼의 역할을 톡톡히 한 것입니다.

파수꾼이 잠들면 멸망은 피할 수 없다

마음의 파수꾼도 되어야 합니다. 마음을 빼앗기면 몸도 재산도 다 빼앗깁니다. 그래서 주님은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잠4:23)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탄식을 했습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랴”(롬7:22~24). 파수꾼이 마음을 잘 지키면 생명과 평안이지만, 아니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롬8:5~6).

요나, 이사야, 예레미야와 같이 당신도 이 시대의 영적 파수꾼입니다. 당신이 외쳤는데 그들이 듣지 않는다면 당신의 책임이 아니라 듣지 않는 자의 책임입니다(겔33:4). 들턴 안들턴 당신은 외쳐야 합니다.

당신을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경고를 무시하면 경고도 너를 무시한다

것인데, 문제는 그가 우리 초소 문을 노크할 때까지 아무도 몰랐다는 겁니다. 만일 그가 귀순 목적으로 남하한 것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문제입니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악행을 저지르는 백성들 때문에 좌절하고 있는 에스겔을 영적 파수꾼으로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사명을 완수할 것을 당부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적에게 대패하여 백성들은 사로잡혔고, 땅은 황폐하여져서 전체가 암울하고 소망 없는 시절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에스겔은 하나님으로부터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파수꾼의 사명은 에스겔에게만 부여된 사명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도 이 나라와 민족을 바로 세우기 위해 모두가 영적 파수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화 한 통화로!



당신도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다!

ARS 060-700-0688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직원칼럼::

교회 신문, 지령 800호

우리 교회신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교단 및 교회에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구현되는 다양한 소식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는 매체입니다. 이를 통해 교단과 민족, 세계를 위해 섬기는 교회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중심교회의 선교활동을 국내외적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2015년 6월 28일, 교회신문이 어언 지령 800호를 맞이하였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감사와 함께 하나님께 올립니다. 또한 오랜 세월 사랑과 열정으로 신문의 한 글자 한 문장을 살기 위해 봉사해 주신 모든 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800호 교회신문이 나오기까지 일등공신은 역시 이초석 목사님 입니다. 교회신문을 창간하여 설교말씀을 비롯하여 수많은 시와 아름다운 사진, 보석 같은 봉우칼럼, 성경에세이 등 신문에 가장 많은 글을 올리며 물심양면으로 온 정성을 다하여 오늘의 교회신문이 되도록 애쓰셨습니다. 신문 편집국장 신영심 집사는 주일설교 말씀요약, 오늘의 메시지(message for today), 교단 소식, 인터뷰 기사 등을 주관 집필하고, 무엇보다도 어려운 일 중의 하나인 집필 섭외를 하는 등 신문에 온 정성을 기울이는 가장 중추적인 실무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새신부가 될 임지해 자매님은 신문 디자인과 편집을 도맡아 하면서 신영심 집사와 함께 신문의 완성분을 만들어내는 숨은 공로자입니다. 한은택 전도사님은 목사님의 국내외 전도사역과 성령의 역사를 실제 상황보다 더욱 실감나게 우리에게 전달하고 기획업무의 바쁜 와중에도 우리에게 객원칼럼, 선교지에서 만난 사람들, 선교스케

치 등의 감동의 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사역에 정신없이 바쁘면서도 매주 빠짐없이 고정칼럼 “Good News”를 싣는 상화평 목사님, 그간 “귀를 기울이세요”를 올려준 신혁주 전도사님도 결코 뒤지지 않는 봉사자입니다.

또한, 촌철살인의 좋은 글과 아름다운 디자인, 그리고 생생한 간증으로 교회신문을 장식해주신 많은 봉사자가 있습니다. 목회와 설교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와중에도 명품 객원칼럼으로 우리의 심령을 확 깨우는 이시대 목사님, 신기류 목사님, 그리고 신현명 목사님, 사업차 해외 근무 중이신 경제학의 대가 임윤석 집사님. “참된 깨달음”에서 진정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김정옥 전도사님. 대치동에서 학원을 경영하면서 신문지면의 “Edu Section”을 통해 청소년교육의 좌표를 제시하는 오자유 집사님. 사모로서 두 자녀의 엄마로써 살릴 겨를도 없으면서도 “To be succeed”를 집필하는 이국진 자매님. 의학박사로서 우리 교단의 건강을 책임지겠다는 “나도 건강할 수 있다” 코너를 맡고 있는 조희경 집사님과 설재현 집사님. 신문봉사의 은혜로 설 집사님과 함께 최근 두 자녀를 동시에 출산하는 축복을 받은 김영숙 집사님. 세종시로 이사 갔어도 빠짐없이 “성경에서 배운다”를 통해 우리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제시하는 하인명 자매님. 국문학 박사과정과 강단에서의 강의, 문서선교부의 총무 역할까지 하면서 “내가 매일 기쁘게” 코너를 기쁜 마음으로 만들어 주는 전훈지 자매님. TV 프로듀서로서 사회적 이슈를 글로 잘 승화시켜 “승리하는 삶”으로 우리에게 용

기를 주는 송현혜 자매님. 광고회사에서 카피라이터로 활동하면서 “청춘 그 아름다운 이름”을 통해 삶에 대한 예리한 통찰력을 전달하는 신은혜 자매님. 신문에서 시각적으로 가장 예쁘고 아름다운 그림인 “Jesus Mania”의 신은유 자매님과 “Illust by So-young Park”의 박소영 자매님. 미국에서 애니메이션을 전공하고 우리 신문에 만화 삽화를 제공하는 예비 새신랑 김문식 형제님, 늘 좋은 사진을 제공해주는 고광위 형제님. 젊은이들이 모두 부러워하는 직장에 다니면서 “하나님 편에 서는 삶” 코너를 통해 깨끗한 믿음을 보여주는 김경현 자매님. 컴퓨터공학 박사과정에 다니는 새내기 교인으로서 “겨자씨만한 믿음” 코너를 통해 결코 작지 않은 믿음을 보여주는 김성일 형제님. 이외에 신앙 간증과 성경에세이 등을 통해 교회신문에 기고한 많은 분들이 모두 우리 신문의 오늘을 만든 주인공입니다.

예수중심교회 신문 800호의 발행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 번 영광, 찬양, 그리고 감사를 올립니다. 글을 쓰지 않으면 잠이 잘 오지 않는 분, 뭔가 새로운 디자인으로 일을 저지르고 싶은 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경험과 삶의 지혜를 남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안달하시는 분, 각 분야에서 내가 최고라고 자부하는 전문가 분들 모두 오세요. 교회신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문서선교부로. 그래서 1000호, 2000호, 아니 무한 호를 만들어 하나님께 더 큰 영광 올릴 수 있도록... 할렐루야!

문서선교부장 이관섭 장로
kwansup1029@gmail.com

나의바람 통일

얼마나 기도했었고!
얼마나 기다렸었고!
남북평화통일을
사랑의 종소리를
이제야 웅크린 발 쪽 뻗고
대청마루에 편히 한잠 청하네.
아~
이 아름다운 우리나라 만만세
대한민국 만만세!
후손에 물려주니
무엇을 더 바라랴
이 모두 하나님 은혜라
외치며 후손에 알리리
후일에 내 꿈 이루고...

2015. 6.25
평화통일 집회를 앞두고

朋友

당신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소외된 채로 무관심과 편견에 맞서다 버려져 세상에서 소외 말하는 문제아가 된 친구들을 끊임없는 사랑과 기도, 말씀으로 변화시켜 하늘나라로 이끄는 귀한 사역자 이요셉 전도사가 있습니다. 그는 6년 전 밤사이 예배당에 몰래 숨어 들어와 술을 마시고 자고 있는 청소년들을 쫓아내는 일을 반복하다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는 못할망정 쫓아내면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술에 취해 쓰러져있는 그 아이들을 깨워서 국밥을 사먹이고 “다음에 오면 더 좋은 것을 주겠다.”고 했더니 다음날 정말로 찾아온 그 아이들을 교회로 이끌면서 양떼 커뮤니티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주로 가출 청소년들

과 지역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선교 대상인데, 개중에는 조직폭력배처럼 온 몸에 문신을 하고 소년원을 들락날락하는 아이들과 성매매를 하는 아이들, 계속해서 자살을 시도하는 아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악하고 죄로 점철된 사회 속에 방치된 채로 온갖 죄를 짓고 사는 이 어린 친구들은 자신들의 입으로 자기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어떠한 희망과 소망도 보지 못한 채 지옥문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 세대를 향해 “세상은 죄를 사랑하고 죄인을 미워하지만,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했고 죄를 미워하셨어.”라고 외치며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역을 깊이 생각해보며 우리의 ‘사명’에 대하여 생각해보았습니다. 우리는 밝은 곳보다 어두운 곳에 가서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아직 미치지 못한 곳으로 달려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은 그들을 정죄하며 손가락질하지만, 그들도 귀한 한 영혼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영혼들이 어두움을 이기고, 영경귀 가지 덤불을 짓밟고, 예배에 나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전까지 마음속에 품고 가야할 ‘사명’입니다.

김경현
kyunghyunjudy.kim@gmail.com

글을 쓰시는 분들과 읽어주시는 분들
모두의 힘으로, 주일 신문이 800호를 맞이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성도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저스 마니아

귀를 기울이세요

지난 주, 청년부에서는 6·25 평화통일 기도집회와 6월 호국보훈의 달에 맞추어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하였습니다. 그곳에는 일제강점기 일본에 항거하다 돌아가신 순국선열, 독립운동을 펼친 애국지사, 민족의 아픔인 6·25전쟁, 그리고 베트남전쟁,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등등 나라를 지키다 돌아가신 많은 호국영령들이 안장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국군 사상자 40만 명과 민간인 사상자 100만 명에 달하는 6·25전사자들 중에 시신을 찾아 묘에 모신 수는 5만 여명밖에 되지 않았고, 시신을 찾지 못하고 이름만 있는 10만 여명은 위패만으로 모시고, 누구인지조차 몰라 시신만 수거한 무명용사 5,000여명의 영이 서려있었습니다. 현충원에서 마련해 준 그들의 구구절절한 사연의 영상을 관람할 때는 눈시울을 붉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들로, 누군가의 남편으로, 누군가의 아빠로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을 나이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젊음과 죽음을 맞바꾼 호국영령들. 평온한 우리의 오늘을 위해 누군가의 내일이 희생되었다는 생각에 그들에게 깊은 감사의 묵념을 드렸습니다. 총회장 목사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젊은이들을 위해 이 평화통일 기도집회를 하는 것이다!”라고 맞습니다! 지금 우리 예수중심교회 믿음의 선대들의 헌신과 기도가 후대들에게 평화통일을 선물할 것입니다. 이번 평화통일 기도집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송현혜
charisma0691@hanmail.net

기록하여 전하라!

얼마 전,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유해발굴감식단이 6·25참전 전사자들의 유해를 발굴하고 신분을 확인하여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주는 과정을 소개했다. 젊은 청년의 모습으로 금방 돌아오겠다면 집을 나섰던 전사자들이 65년이 지나서야 차가운 유골로 변해, 하나, 둘 그 모습을 드러냈는데 안타까운 것은 8,000명 넘게 찾은 유해 중 105구만 신원이 밝혀질 만큼 발굴과 신원 확인 작업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장면이 있었다. 우연히 군번줄 하나가 발견되자 단 몇 분 만에 전사자의 이름, 신분, 전사일, 전투내용 등 중요 인적 사항이 확인된 것이다. 군번줄 발견이 결정적이기도 했지만 국방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투기록과 참전용사들의 증언 등이 잘 정리되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기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 번 깨닫는 순간이었다. 성경 역시 하나님께서 기록해주신 하나님의 역사이자 하나님과 함께한 자들의 위대

한 증언이다. 정확한 연대를 알 수 없다고 해도 대략 BC1450~1400년경에 기록되기 시작한 성경이 오늘날, 시대와 세대를 초월하여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으로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성경에 담긴 기록들이 무엇보다 참으로 ‘세밀하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그리고 이렇게 상세하고 일관성 있게 기록했다는 것이야말로 성경이 거짓이 아닌 참이요, 진실임을 반증해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7일 동안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노아의 방주의 설계도와 탑승한 동물들의 종류는 무엇인지, 출애굽은 어떠한 기적을 통해 일어났는지, 광야 행진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지파별 행진 대형은 어떠한지, 수많은 절기에 대한 유래와 성막, 성전에 대한 변천사까지 읽다보면 어떻게 그 많은 저자가 이렇게 상세하고도 통일된 하나님의 역사와 속성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 감탄을 금할 수 없다. 신약성경에 넘어와서도 마태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족보가 일일이 기록된 것을 기점(起點)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자세한 기록과 부활 이후 사도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앞으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예언까지 일점일획도 빠짐이 없다. 이러한 묵상 끝에 교회신문이 800호를 맞이했다는 소식을 들으니 뭉클한 마음이 앞선다. 교회신문 역시 어찌 보면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 교단을 사용하시는 역사적 기록이자, 우리 모두와 함께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기와도 같을진대 그런 귀한 기록지가 벌써 15년 동안 이어져 지면으로, 인터넷으로 지금 우리에게, 그리고 후대까지 미쳐 언제든 많은 이들의 삶에 교훈을 줄 것이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 역시 하늘나라 생명록 책에 기록될 것임을 기억하자. 그리고 지금 우리 각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기록하고 전해보자!

하인명
renming@daum.net

큰 사랑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복락의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복되고 기쁜 소식입니까? 다른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빈부귀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참 평안을 얻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의 삶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Good News

프랑스 사실주의 문학의 대표적인 작가 발자크의 장편소설 ‘고리오 영감’이라는 책에는 아버지의 아낌없는 사랑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부인을 일찍 잃어버린 고리오 영감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자란 두 딸은 고관대작의 부인이 되었지만 아버지에게는 무관심했습니다. 그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오로지 아버지가 가진 돈이었습니다. 고리오 영감은 결국 딸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가난뱅이가 되어 이웃들의 경멸과 동정 섞인 박해를 받으며 외롭게 살아갑니다. 죽음이 가까워 왔지만 자신을 찾아오지 않는 딸들에 대해서 서운

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들을 축복하며 죽어간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할 때, 떠오르게 되는 위대하고 숭고한 아버지의 사랑이 있습니다.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사랑 이야기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 주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 하셨습니다. “궁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엡2:4~5). 이 보다 더

“나”다운 삶!

“넌 커서 뭐가 될래?” 어린 시절 어른들에게 수없이 들던 질문인데요. 대부분은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하고서 그와 정반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고 합니다. “나”다운 삶의 첫걸음은 나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마음과 “나”는 무엇을 해야 행복한지를 찾아내고, 나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목표가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목표를 채워주기 위해 죽도록 일만 하는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의 길을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용기가 없는 자기 자신이 아닐까요? 세대를 초월하며 꾸준히 사랑받는 비틀즈는 자기들만의 독특한 멜로디로 차별화했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나의 정체성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다운 참된 인격을 자기 삶의 근본으로 삼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삶은 노력하지 않는 자에게 그 무엇도 주지 않거든요. 오직 열심히 자신을 갈고 닦는 사람에게만 그만큼의 보상을 주고, 삶의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기 때문이지요. 이 세상 최고의 명품 옷은 바로 자신감을 입는 것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입니다. 잉태될 때도 수억대 일의 경쟁률을 뚫은 대단한 존재이며 창조주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작품입니다. 내가 단 하나의 존재인 만큼 나를 향한 창조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 목적이 최고도 좋지만 반드시 최고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과정이 즐거운 아름다운 삶을 선택하면 되니까요. 참된 가치를 잘 발견하시고, 그리고 단 하나 (Only one)인 자신을 믿고 사랑하며 응원할 때, 비로소 “나 다운 삶!”이 시작되지 않을까요?



가정은 나의 선교지

“부름 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 찬송가를 무지 좋아하고 수시로 부르지만, 직접 성경책을 들고 이웃의 문을 두드리는 일은 여전히 망설여진다. 가끔 식당에서 식사기도를 엄청 거창하게 하는 기독교인들을 자주 본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생각에 슬며시 고개를 돌려 버린다. 거창하게 기도를 마친 후 그분들은 고음과 소란함으로 주위 분들에게 실례를 범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식당 종업원들에게 하대를 하며 종업원을 마구 부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같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 부끄럽게 여겨질 때가 더러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에 대해 생각해보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자녀들에게 우리는 어떤 모습의 부모로 보

이고 있는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우리는 자녀의 부모이기도 하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여줄 수 있는 기독교인이기도 하다. 부모의 신앙을 보면서 자녀의 신앙이 튼튼해지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더욱 굳건히 다져져야 할 터인데..., 나는 어떠한가? 조용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우리의 가정은 최초의 선교지가 되어야 한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신앙인으로서의 자세를 배운다. 우리의 이웃들은 기독교인인 우리의 모습에서 주님의 모습을 찾는다.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첫 계명은 사랑이다.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가까운 이웃부터 먼 친척들에게 인정받는 기독교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 사랑은 희생과 양보가

따라야 한다. 기독교인은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믿지 않는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기독교인으로서의 권리만 주장하며 그들을 모르는 척 외면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과 귀에 주님의 사랑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기 위해서라면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생활의 순교자가 되어야 한다. 예수쟁이라고 비웃음을 받는 건 자랑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하며 해결해야 할 우리의 몫이다. 지혜도 좋고 소신도 좋지만, 그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사랑의 순교자가 되어야 한다. 아플 골짜기 빈들까지 갈 것 없다. 가까이 있는 내 가정이 나의 선교지가 되어야 하고 내 신앙의 순교지가 되어야 함을 항상 기억하자. 오자유 lovelyactor@naver.com